

# 노인에 대한 지식과 경험 증가가 대학생의 노인지각에 미치는 영향

## Changing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s Toward the Aged: Effects of Knowledge and Experience of the Elderly

인제대학교 가족·소비자학과

교수 박경란

군산대학교 생활과학부

교수 이영숙

Dept.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Inje University

Prof. : Kyung Rhan Park

Faculty of Human Ecology, Kunsan National University

Prof. : Yeong sug Yi

### ◀ 목 차 ▶

I. 문제의 제기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s about the elderly before and after an introductory course for gerontology. Sixty-two male and female undergraduate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study as a part of the course requirement. Throughout the semester, these students received a series of classroom lectures on gerontology, as well as participated in diverse activities to experience elderly lives. A survey was administered with the students at the beginning of the first day of class and at the end of the semester. By the end of the unit university students were more likely to have accurate conceptions of and positive attitudes toward aging and the aged. More specifically, they were more likely to (1) perceive "old" and "getting old" as a positive one, (2) seem older adults spend their time on active self-development and social activities, (3) view older adults are important, (4) change opinions about what an old person and young person do together, and (5) have a positive outlook on their own future lives as older adults.

주제어(Key Words): 노인지각(perceptions toward the aged), 지식(knowledge), 경험(experience)

## I. 문제의 제기

한 사회가 보다 근대화된 사회로 발달해 나아갈 때 노인의 지위는 하락되고 노인에 대한 사회의 태도는 보다 부정적이 된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사회의 빠른 근대화과정은 노인의 기술을 쓸모 없게 만들고, 퇴직을 증가시키고, 지식자원으로서의 그들의 특권을 약화시키고, 노인들을 낙후된 지역이나 환경에 남겨놓음으로써 사회 내에 노인차별과 편견의식을 증가시킨다(Palmore, 1999). 더욱이 오늘날의 정보화 사회에서는 기술이 더욱 고도화되고 세분화되어 컴퓨터와 인터넷 등을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노인들보다 훨씬 많은 지식과 정보를 알게 된다. 이것이 노인의 지혜와 재능에 대한 존경심을 약화시키며, 세대 차를 심화시켜 노인을 더욱 이질적이고 낮은 존재로 만들고 있다.

사회노년학의 많은 문헌들은 이러한 현상을 잘 입증해 주고 있다. 노인과 관련하여 사회의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태도를 조사한 일련의 연구들(박경란·이영숙, 2001; Kite & Johnson, 1988; Seedfeldt, 1987; Vernon, 1999)은 사회에는 일반적으로 노인과 사회에 이롭지 않을 수 있는 속설, 고정관념, 오해가 있으며, 실제의 노인존재 및 노후생활보다 더욱 과장된 편견과 부정적인 생각이 널리 퍼져 있는 경향이라고 밝히고 있다(Aiken, 1982). 이러한 현상은 심지어 어린 아동에게서도 발견되고 있는데(Falchikov, 1990), 그러나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본격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청소년기부터라는 지적들이 많다(예: 이선자, 1989; Couper 등, 1995).

사실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한 세대 이전보다 생존해 계시는 그들의 조부모나 노인친척들을 더 많이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과의 사이가 더욱 소원해지고 부정적으로 되어 가는 것은 세대간의 동거 및 접촉의 기회가 상당히 줄어들어, 그 결과 노화과정 및 노인에 대한 경험이 매우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와는 반대로 앞으로 청소년들은 수명 증가로 인해 그들의 부모가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노인들과 함께 해야할 잠재성이 높아졌으며, 무엇보다도 청소년들 자신이

과거 그 어느 시대보다도 인생을 더 오래 살 것이다. 더욱이 젊은 청소년들은 앞으로 사회에서 노인들이 받는 대우 예를 들어, 특권, 권리, 임무 및 지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세대이다(Crandall, 1978). 현재 중·고등학교와 대학에 다니고 있는 젊은이들이 사회의 성인이 되어 노인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이러한 미래 의사결정자들이 노인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여 잘못된 지식이나 시각을 갖고 있다면 현재의 노인세대나 젊은 세대 모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노인에 대해 어떤 태도와 이미지를 갖고 있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수명이 더욱 늘어나고 노인인구가 증가할수록 젊은이들은 노화과정이 그들의 삶에, 그들의 부모와 조부모의 삶에,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노화 및 노인에 대한 실제적이고 긍정적인 태도가 요구된다. 만약 청소년들이 노인세대들의 힘의 진가를 바로 인식하고 인정할 수 있다면 노인들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것이며, 세대간 분리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노인에 대한 편견 및 부정적인 사회적 태도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Langer, 1999).

이러한 측면에서 청소년들의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세대관계를 긍정적인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실천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모색하고자 하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관련문헌들은 부정적인 세대관계를 가져오는 주요 요인이 세대간 접촉의 결여, 노화과정에 대한 잘못된 지각과 정보, 그리고 '사회문제'로서의 노화의 사회적 구조 등이라고 밝혔으며(Scott 등, 1998), 특히 Ferraro(1992)는 노화 및 노인에 대한 무지가 이에 대한 잘못된 신념을 강화시킨다고 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서병숙·김수현(1999)과 한정란(2000)은 우리 나라 청소년들이 노인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노인에 관한 교육의 부재가 그 한 원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더 나아가 몇몇 학자들은 노인교육 과정을 통해서 노화 및 노인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와 인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향상시킬 잠재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McGuire, 1993), 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나 세대공동체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연구(예: 한정란, 1994; Friedman & Butler, 1999; Dellmann-Jenkins, 1997; Laney 등, 1999; Shetterley 등, 1998)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은 물론 노화 및 노인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조차 미약한 실정이다. 실질적으로 노인에 대한 관련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의 태도 및 지각이 어떤 측면에서,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변화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찰한 연구가 거의 없다. 교육은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이며, 통찰력을 얻고 자신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사회에서는 물론 가족 내에서조차 노인을 접촉하고 경험할 기회가 점차 어렵게 되어가고 있는 오늘날, 앞으로 노인과 함께 삶을 살아갈 그리고 자신 스스로 노화의 과정을 밟아갈 젊은 세대들을 대상으로 노인에 관한 교육의 실시는 그들에게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높여줄 것이며, 궁극적으로 노인집단에 대해 친밀감을 느끼게 하여 세대간의 상호작용을 이끄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청소년들은 제한된 시계(視界)를 갖는 경향이다. 그들은 현재 안에서, 현재를 위해 살며, 노화와 관련된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생각은 거의 하지 않으므로(Lichtenstein 등, 1999) 건강한 개인의 노화과정 및 노후생활을 계획·준비해 나가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가정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기 이전과 실시한 후에 대학생들의 노인 및 노화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는지를 고찰하는데 있다. 대학생들이 갖고 있는 노인에 대한 생각이 이에 대한 교육 참여의 결과로써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 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들의 생각이나 태도가 바뀔 것인가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고찰될 연구문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의 증가는 “노인”

에 대한 대학생의 지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노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의 증가는 “노인생활”에 대한 대학생의 지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노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의 증가는 “노인 존재의 중요성”에 대한 대학생의 지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노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의 증가는 “세대간 공유활동”에 대한 대학생의 지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다섯째, 노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의 증가는 “자신의 노년기 전망”에 대한 대학생의 지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노인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지각과 노화에 대한 지식의 결여는 모든 연령집단에 걸쳐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Palmore, 1988). 예를 들어 젊은 세대들은 노인을 젊은이들과 비교할 때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노쇠하고, 외로우며(Doka, 1985), 부적응적(Weinberger & Millham, 1975)이라고 묘사한다. 보다 최근의 연구들(예: Aday 등 1991)도 노인에 대한 젊은이들의 태도가 일반적으로 부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조사한 일련의 연구들(Hummert, 1990; Hummert, 등, 1994) 역시 젊은이들이 노인에 대해 긍정적·부정적 고정관념을 다 갖고 있지만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긍정적인 고정관념보다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나라의 경향을 살펴보면, 다른 연령집단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가 중립적이거나(김혜경, 1997), 비교적 긍정적이라고(이은미, 1990) 밝힌 연구들도 일부 있지만 부정적인 결과를 보여준 연구들도 적지 않다. 우선, 노인에 대한 대학생의 태도를 10개 영역으로 조사한 연구(차용은, 1980)에서 나타난 반응을

보면, 노인의 보수적 경향(81.3%), 노인의 관심과 취미활동(69.3%), 신체적 측면(68.7%), 노인의 불안감(65.9%), 현재와 미래에 대한 태도(59.1%), 경제적 문제(56.6%), 인성 측면(50.1%)의 순위로 부정적이었다. 윤진·조석미(1982)의 연구에서는 대학생 대상으로 경산노화사실인지 정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평균 정당율은 54.1%였으며, 노화사실에 대한 부정적 편견은 82.2%, 긍정적 편견은 9.4%로 나타나 부정적 편견이 상당한 정도임을 알 수 있었다. 서병숙(1986)의 의미차이 분석법(semantic differential)에 의해 측정된 노인에 대한 이미지는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생각되는 '소극적' '고집이 센' '무능한' 등의 이미지가 대학생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최근의 연구(서병숙·김수현, 1999)에서도 남녀 대학생은 일반적으로 노인에 대하여 비활력적, 수동적, 약한, 한가해 보임, 의존적, 조그마한, 비생산적인, 저속한, 불만족, 무능한, 빈약한, 비관적, 탐욕스러운, 좁은, 소원한, 폐쇄적, 느린, 보수적, 고집센, 정적, 회색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란(2000) 역시 186명의 남녀대학생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노인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 대학생들의 태도는 전반적으로 다소 부정적이었으며, 특히 남녀노인 모두에 대하여 지루하고, 쇠약하고, 고지식하며, 의존적이고, 보수적이고, 매력이 없으며, 불평이 많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는 외국의 선행연구들에 비하여 훨씬 더 부정적이라고 하였다. 또한 노인집단에 대한 대학생의 고정관념을 확인하기 위해 전형적인 노인의 특성 및 특성의 범주를 규명해 본 연구(박경란·이영숙, 2001)에서도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고정관념을 갖기보다는 훨씬 더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갖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몇몇 연구(예: Stricker & Hillman, 1996)에서는 청소년들이 노인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화에 대한 인식에서나 일반 노인에 대한 생각은 부정적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알고 있는 조부모에 대해서는 긍정적

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청소년들이 노인에 대한 객관적인 이미지와 자신과 친밀한 조부모에 대한 태도를 별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Stricker와 Hillman(1996)은 이 차이를 조부모의 사회적 역할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와 같이 일반 노인과 조부모를 다르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들은 여러 학자들(김혜경, 1997; 이선자, 1989; Guillory, 1983; Scott 등, 1998)의 주장과 같이 노인과의 보다 많은 경험과 접촉은 노인을 이해하고 가깝게 지각하는데 중요하며, 동시에 이러한 방향으로의 교육은 청소년들이 일반 노인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 2. 노인에 대한 지식과 경험증가의 영향

학교 교과과정에서 노화 및 노인교육은 학생들의 고정관념적 태도를 변화시키고 지식을 주입시키고, 기술을 발달시킨다. 노년기를 공부하는 것은 학생들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노화를 감지하기 위한 도구를 제공한다(Langer, 1999). 예를 들어, Positive Aging™은 중, 고등학교에서 노년학 주제와 관련된 교육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기를 추구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것은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확대시키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생애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학생들이 노인의 욕구와 관심사에 대한 민감성을 발달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Lichtenstein, 1999). 이와 같이 노인에 관한 교육은 노화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없애고, 참여자에게 미래의 긍정적인 역할모델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경험적 연구 몇 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Chapman과 Neal(1990)은 노인과 청소년이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 행동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다른 세대에 대한 태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실험해 보았다. 그 결과 노인에게 도움을 주었던 청소년들은 노인과 함께하는 것을 더욱 즐겁게 생각하게 되었고, 사회적 거리가 줄어들었으며, 노인들이 청소년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들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자신에 대해서 어떤 것을 알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첫째, 생각과는 달리 노인과의 관계를 보다 쉽게 발달시킬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1/4 학생 해당) 둘째, 노화 및 잘 늙어 가는 방법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으며 셋째, 노인과 상호작용 하는데 있어 자신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잘못된 결점을 보다 잘 깨닫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노인에 대해서 배운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노인이 얼마나 다양한가를 발견한 점이라고 응답한 것이 가장 많았다.

Aday 등(1991) 역시 9개월에 걸친 세대공동체 교육을 통해 노인에 대한 아동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평가하였다. 즉 실험집단은 통제집단보다 노인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또한 자신의 노화에 대한 태도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Newman 등(1997)은 노인에 대한 아동의 태도와 지각은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고찰한 연구에서 “노화에 대한 아동의 관점(Children’s Views on Aging: CVOA)”의 척도를 사용하여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결론적으로 아동의 반응이 보다 긍정적인 측면으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즉 사전 측정에서 “잘 모르겠다”에서 사후검사 측정 시 “좋은” 또는 “보다 좋은”으로 변화되었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1, 2학년생을 대상으로 노화에 대한 통합교육(6주 단위)을 실시하고 노화교육의 결과를 고찰한 Laney 등(1999)은 교과학습이 끝난 후에 아동들은 첫째, 노화과정과 수명기대에 대해 보다 정확한 개념을 갖게 되었으며 둘째, 노화란 많은 요인에 기초하여 개인에 따라 상이하게 성장하고 발달하는 과정으로 지각하게 되었으며 셋째, 노인들을 행복하고, 적극적이며, 사회에 기여하는 성원으로 생각하게 되었으며 넷째, 젊은이와 노인간에 유사함과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다섯째, 자신의 미래의 노후를 보다 긍정적으로 조망하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연구자들은 노화 및 노인에 대한 다학제적 교육은 이에 대한 학생들의 지식과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궁극적으로 관련개념을 배울 수 있으며 연령 차별적 태도를 바꿀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Lichtenstein 등(1999)은 교육을 실시하기 이전 100명의 중학생에게 “노인은 \_\_\_\_\_이다”에 대해 반응하도록 요청하였다. 다시 Positively Aging™ 교과과정의 12단위 가운데 3단위 강의를 실시한 후 반응을 재조사하여 노인이 되는 것에 대한 긍정적 반응, 중립적 반응, 부정적 반응으로 나누어 분류한 결과, 사후검사에서 보다 긍정적인 반응이 증가한 반면, 부정적인 반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은 4%에서 17%로 증가되었고, 반면 부정적인 반응은 29%에서 16%로 감소하였다. 3단위의 짧은 노화교육에도 불구하고 중학생의 노화 및 노인에 대한 태도와 생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우리 나라의 한정란(1994)은 노인 3명과 여대생 7명을 대상으로 5회에 걸친 세대공동체 교육을 실시한 결과 노인교육 과정을 통해 첫째, 노인세대에 대한 이해가 확대될 수 있으며 둘째, 노인에 대한 판단기준이 보다 다양하게 고려될 수 있으며 셋째, 젊은이들의 노인에 대한 시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며 넷째, 노인들과의 의미 있는 만남으로도 노인 및 노화에 관한 지식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교육 경험을 통해 젊은이들의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의 변화는 노인에 대한 능력과 활동 요인에서 커다란 향상이 있었다고 하였다. 서병숙·김수현(1999)은 남녀대학생을 대상으로 노인에 관한 수업을 받은 정도와 노인에 대한 이미지와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 노인에 관한 수업을 받은 정도가 많을수록 노인을 활동적이고 행복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Scott 등(1998)의 연구에서는 교육프로그램의 개입 이후에도 학생들의 태도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7~18세 학생들에게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였지만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낮은 수준의 지식을 바꾸지 못하였는데, 연구자들은 교육실시 시기를 앞당기고, 통합

관점으로의 접근과 세대상호간의 접촉과 같은 체험적인 요소를 실시하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전북과 경남 소재 대학교의 “노년학(노인학)” 강좌를 수강하는 대학생 62명 전원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참여 학생들은 2, 3학년이 대부분(59명)이었으며, 4학년은 소수(3명)에 불과하였다. 또한 대부분이 여학생(56명)이며 남학생은 일부(6명)였으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20.5세이었다.

#### 2. 지식과 경험의 내용

##### 1) 노인에 대한 지식

노화 및 노인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년학 강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였다.

- 가. 노화의 기본 문제와 한국노인
- 나. 생물학적 노화
- 다. 지적 노화
- 라. 성격특성의 변화
- 마. 감각과 지각능력의 변화
- 바. 노인의 적응(일, 여가활동)
- 사. 노인의 적응(경제, 종교)
- 아. 노인과 가족
- 자. 노인과 질병, 죽음
- 차. 미래의 노인 전망

##### 2) 경험활동

한 학기 동안의 강의에서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도록 과제가 주어졌다.

가. 노인시설 방문: 노인시설기관의 실무자 특강 및 그 곳 노인과의 담소.

나. 초빙 강좌: 성공적으로 노년기를 보내고 있는 노인을 초청하여 성공적 노화에 관한 특강 실시.

다. 비디오 시청: 노인복지가 우수한 선진 사회의 노인 생활 및 복지프로그램에 관한 비디오 시청.

라. 노인과의 면접: 65세 이상 된 건강한 노인 1인을 대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최소한 3회 이상 만나도록 함. 이 때 노인의 지나온 일생 및 현재, 미래의 삶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고, 식사·다과·산책·운동가운데 적어도 한가지 이상을 함께 하도록 하여 노인을 알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함.

#### 3. 조사도구 및 조사과정

노년학 강의 첫 시간에 노인과 노화과정에 관한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고 강의 마지막 시간에 역시 같은 질문에 답하도록 하였다. 질문지는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을 묻는 질문과 노인과 노화과정에 관한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노인과 노화과정에 관한 개방형질문은 Laney 등(1999)의 연구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이 질문지를 완성하는데 걸린 시간은 20분~30분 정도였다.

### IV. 연구결과

#### 1. “노인”에 대한 지각

우선,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지각을 알아보기 위해 ‘늙은(old)’이라는 단어와 관련된 연상어와 늙어간다는 것의 의미를 개방형으로 질문하였다. 그 결과 연상어의 종류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후검사에서는 사전검사에서도 연상어의 수효가 증가했다. 즉 사전검사에서는 105종의 단어를 연상해내었는데 반해 사후검사에서는 116종의 단어를 연상하였다(표 1).

연상어는 그 내용 면에서 단순히 노인이나 그들의 소유물을 지칭하는 단어, 노인의 신체적 특성을 나타내는 단어, 노인의 내면적 특성을 나타내는 단어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를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로 비교해보면 사전검사에서는 단순히 노인이나

<표 1> '늙은'의 연상어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 비교

	사 전	사 후
긍정적	지혜로운, 현명한, 연륜, 여유 있는, 자유로운, 풍요로운, 경험이 많은, 행복한, 자상한, 편안한, 인자한, 안정적인, 정직한, 우뚝 솟은, 고고한, 기품 있는, 강인한, 한적한, 인생의 멋, 한적한, 겸손한, 고목나무, 바위, 휴식, 여행, 가족, 친구.	지혜로운, 현명한, 연륜, 여유 있는, 자유로운, 풍요로운, 경험이 많은, 행복한, 자상한, 편안한, 인자한, 안정적인, 정직한, 자비로운, 관대한, 포용력, 이해심 많은, 너그러운, 따뜻한, 부지런한, 평온한, 유머 있는, 배려하는, 보살핌, 미소, 웃음, 신중한, 차분한, 사려 깊은, 넉넉한, 일하고 싶어하는, 깨끗한, 유연한, 이성적인, 박식한, 헌신적인, 아낌없이 주는, 무언가를 동경하는, 원숙한, 착한, 순수한, 성실한, 절약하는, 아름다운, 주관이 뚜렷한, 인내심 있는, 보람있는, 자기관리, 아직 희망이 있는, 마음의 고향, 재시도기, 새로운 만남, 무력하지 않은, 진취적, 활동적, 강한, 고요한, 중후한, 성숙한, 건강한, 지도자, 성인군자, 노후설계.
중립적	노인, 낙엽, 가을, 회색, 공원, 사진, 추억, 과거, 목침, 성경, 제사, 개, 고양이, 이솝우화, 손자, 민요, 퇴직, 세월의 변화, 주름, 백발, 굵은 허리, 검버섯, 틀니, 지팡이, 돋보기, 고무신, 한복, 옥반지.	노인, 황혼, 낙엽, 노을, 가을, 국화, 할머니, 할아버지, 나의 미래, 회색, 노인정, 폭죽, 회고, 자연적 현상, 나이가 많은, 주름, 백발, 염색, 굵은 허리, 늙은 냄비, 지팡이.
부정적	고독, 외로움, 정적, 사라짐, 걱정, 근심, 두려움, 나약한, 허약한, 힘이 없는, 소외된, 잊혀지기 쉬운, 도전기회 잃은, 허망한, 덧없는, 주책, 변덕스러운, 의존적, 짐이 되는, 초라한, 무료한, 느린, 무능력한, 고집스러운, 재미없는, 구식의, 유키, 소극적인, 단순한, 반복적인, 후회, 비생산적, 고생, 추한, 불쌍한, 마지막, 서러움, 어린아이, 피로, 눈물, 치매, 질병, 죽음, 뒷방늙은이, 텅빈 집, 잔소리.	외로움, 나약한, 힘없는, 생이 다되어가는, 죽음준비, 쓸쓸한, 추운, 어린이 같은, 쉽게 빠지는, 무지한, 가난한, 눈물, 후회, 할 수 없는, 소극적인, 슬픈, 조심스러운, 큰소리치는, 도움이 필요한, 주변걱정 하는, 새로운 것에 불안한, 감상적인, 힘든, 느린, 미련, 불쌍한, 보수적인, 이별, 치매, 질병, 죽음.

그들의 소유물을 지칭하는 단어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면 사후검사에서는 노인의 내면적 특성을 나타내는 단어가 많아졌다. 이는 노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적었던 때에는 단지 노인을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산출된 연상어에서도 반영된 것이고 노인에 대한 경험이 증가한 이후에는 이전에 몰랐던 노인의 내면적인 면을 알게 된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이들 연상어를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 그리고 중립적 것으로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먼저 긍정적인 연상어를 살펴보면 사전검사에서도 사후검사에서도 현저히 증가된 것을 볼 수 있다. 사전검사에서는 단지 30종에 불과한 긍정적인 연상어가 사후검사에서는 64종으로 증가한 것이다. 반면 부정적인 특성이나 중립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단어는 사전검사에서도 사후검사에서도 감소하였다. 사전검사에서도 부정

적인 연상어가 47종, 중립적인 연상어가 29종이던 것이 사후검사에서는 31종, 21종으로 각각 감소함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젊은(young)'에서 연상되는 단어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잘 알다시피 청년 지향 문화에서는 젊음에 더 가치를 두기 때문에 '젊은'의 연상어는 '늙은'의 연상어에 비하여 부정적인 특성이나 중립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연상어가 적고 긍정적인 연상어가 많다. 이러한 경향은 사전 검사에서도 사후검사에서도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사전검사에서는 긍정적인 연상어가 65종, 중립적 연상어 22종류, 부정적 연상어 15종이었던 것이 사후 검사에서는 47종, 10종, 30종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대학생들에게 '늙은'의 의미가 변화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더구나 사후검사에서도 나타난 '젊은'의 연상어 중 부정적인 단어와 긍정적인 단어가

〈표 2〉 늙어간다는 것의 의미에 대한 사전-사후검사 비교

	구체적 서술(예)	사 전	사 후
긍정적	수많은 경험과 지혜를 터득할 수 있는 것. 더욱 지혜로와 지며 삶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것. 성장하는 것처럼 당연하게 받아들여야하는 것. 신체적으로 약화되지만, 정신적,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 고상함을 갖추는 것. 외관상으로는 거리감이 생기지만 이것조차도 아름답게 느껴지는 시기. 속이 팍 차여지는 것. 내가 격려 받고 응원 받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격려, 응원해야하는 것.	17	17
중립적	내 주변을 정리하는 것. 인정하기 싫어도 받아들여야하는 것. 아름답고도 슬픈 것. 각 삶의 단계는 고유한 특성이나 장단점이 있는 것. 세상과 점점 더 깊숙이 동화되어 가는 것.	16	6
부정적	내가 하고싶은 것,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둘씩 줄어들어 가는 것. 외롭고 두려운 것. 초라하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 신체적 노쇠해 가는 것. 지치고 힘들어지는 것. 실패하면 회복되기 어려운 시기.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 몸이 쇠약해지고 가족원이나 사회의 보살핌이 많이 필요해지는 것.	50	18

‘늙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것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주목할만하다. 사전검사에서 ‘젊은’과 ‘늙은’의 동일한 부정적 연상어는 없었으나 사후검사에서 2중(어린이 같은, 후회)으로 나타났고 긍정적 연상어는 2중(행복한, 사랑)이었으나 사후검사에서 6중(웃음, 즐거운, 순수한, 아름다움, 주관이 뚜렷한, 활동적)인 사실은 놀랄만한 것이다.

늙어간다는 것의 의미를 통하여 살펴본 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지각에서도 연상어를 통해 본 결과와 같은 경향을 볼 수 있었다. 사전검사에서 전체 서술의 반절 이상을 차지한 부정적인 서술이 사후검사에서 현저히 감소하였고, 중립적인 서술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부정적인 서술로는 주로 신체적인 노화에 따른 변화를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우울해지는 등의 심음을 표현하는 서술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긍정적인 서술은 인생의 경험을 통한 내면적인 성숙을 즐기며 노화를 자연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인다는 서술이 많았다.

〈표 2〉는 긍정적 서술, 부정적 서술, 중립적 서술의 대표적인 예를 제시한 것이다.

## 2. “노인생활”에 대한 지각

대학생이 노인의 일상생활에 대하여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소극적 생활, 집안일 참여 생활, 자기개발 생활, 적극적 생활로 분류하여 살펴 보았다(표 3).

소극적 생활은 노인이 아무 하는 일없이 시간을 보낸다든지 노인정이나 공원 또는 또래노인과의 대화를 하거나 TV시청이나 라디오청취, 또는 장기나 화투 등 단순게임을 하는 경우이며, 집안일 참여 생활은 손자녀 돌보기나 자녀나 자신의 집안일 돕기 등을 주로 하는 경우, 자기개발 생활은 독서, 운동, 취미생활, 노인대학 참여 등으로 자신의 개발을 위해 생활하는 경우, 그리고 적극적 생활은 봉사단체 참여, 종교생활 등 모임에의 참여, 쇼핑 등을 하는



〈표 3〉 노인생활에 대한 지각의 사전-사후검사 비교

노인 생활		사 전	사 후
소극적 생활	아무일도 하지 않음, 노인정, 공원, TV나 라디오 청취, 장기 등 단순게임	79	55
집안일참여 생활	손자녀 돌보기, 집안일 돕기	33	32
자기개발 생활	독서, 취미생활, 운동, 노인대학	13	26
적극적 생활	봉사단체	6	19
계		131	132

경우이다. 대학생들은 소극적 생활에 가장 많이, 적극적 생활에 가장 적게 응답하였고 이러한 응답은 사전, 사후검사에서 동일하였다. 그러나 사전검사에서는 사후검사보다 이러한 경향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사전검사에서 소극적 생활을 한다는 지각은 전체 131회 중 79회를 차지하여 60%이었으나 사후검사에서는 이러한 소극적 생활을 한다는 지각이 전체 132회 중 55회(41%)에 지나지 않았고, 적극적 생활을 한다는 지각은 사전검사에서 6회에 불과하였으나 사후검사에서는 19회로 증가하여 노인의 생활에 대한 지각의 변화를 볼 수 있었다. 또한 자기개발에 보낸다는 지각도 사후검사에서는 두 배나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 중 무엇보다도 적극적 생활로 분류한 활동 중 봉사활동을 한다는 지각이 현저히 증가한 사실은 특기할 만하다. 봉사활동을 하며 지낸다고 지각하는 대학생이 사전검사에서는 2회에 지나지 않았으나 사후검사에서는 11회로 증가한 것이다. 노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기 전에는 노인이 다만 시간을 보내기 위해 소일하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알았던 대학생의 지각이 노인에 대한 경험 후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으로 지각한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 젊은이의 대다수가 노인들을 적극적인 사회참여자로 보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준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노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는 것이 노령화사회를 대비하여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 3. “노인 존재의 중요성”에 대한 지각

노인을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사전

검사에서는 중요하다고 대답하지 않은 사람이 5명(중립적 2명, 중요하지 않다 3명)인데 반해서 사후검사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대답한 사람이 전혀 없어(중요하다 61명, 중립적 견해 1명) 지각의 변화를 볼 수 있었다.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가도 억지를 쓰는 모습을 대하면 그런 생각이 없어진다’라는 이유로 중요한 존재라고 응답하지 않았던 대학생도 ‘많은 경험으로 삶의 방향을 제시한다’, ‘현재의 나의 존재를 가능하게 한 사람이다’, ‘나의 미래’, ‘우리 사회의 산 증인’ ‘편안한 휴식처’ 등의 이유로 중요한 존재라고 응답하는 변화를 보여 사후검사에서는 대학생들 모두 노인을 중요한 존재라고 지각하였다.

### 4. “세대간 공유활동”에 대한 지각

대학생들이 노인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으로 노인의 말동무되어주는 활동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이 외에도 집안 일이나 산책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활동을 지적하였다.

〈표 4〉에서 보듯이 노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직후의 검사에서는 노인과의 공유활동의 종류나 양을 더 지적하였다. 내용 면에서도 사전검사와는 다른 면을 발견할 수 있었다. 사전검사에서는 지적되지 않은 활동이 사후검사에서는 지적되었는데 즉 봉사활동 등 적극적인 활동과 노인을 학습시키는 일을 지적한 점과 특히 무슨 일이든지 같이 할 수 있다고 지적한 점이 차이나는 결과였다.

노인과 대학생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노인이

〈표 4〉 노인과의 공유활동에 대한 지식의 사전-사후검사 비교

공유활동	사전	사후
말동무되기	34	35
집안일(음식 만들기·기본적 일상생활)	15	16
산책	17	9
여행·관광·등산	6	11
가벼운 운동·게임·놀이	10	18
TV시청	8	9
쇼핑	3	5
식사하기	3	8
봉사활동	0	7
학습(독서·신문·뜨개질)	0	5
무슨 일이든지	2	3
기타(화초 기르기·목욕)	0	6
계	98	132

대학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과 대학생이 노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먼저 노인이 대학생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로 가장 많이 지적한 것은 사전, 사후검사에서 동일하게 노인의 인생경험을 통한 지식과 경험의 전수로 나타났다. 또한 사랑과 편안함을 주는 일을 그 다음으로 많이 지적한 것도 사전과 사후 동일했다. 그러나 사전검사 시에는 노인들이 물질적 도움을 주는 것을 지적한데 반해 사후검사 시에는 이러한 지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점과 사전검사 시에 노인의 잔소리나 목적 없이 시간 보내기 같은 응답이나 해줄 수 있는 특별한 일이 없다고 나타난 응답이 사후검사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노인에 대하여 잘 알기 전에는 대학생이 노인이 해줄 수 있는 일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면이 노인에 대하여 알고 난 후에는 그런 생각이 없어졌다는 것은 노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세대간 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대학생이 노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로 가장 많이 지적한 것은 사전, 사후검사에서 동일하게 말동무가 되는 것이었다. 또한 식사나 여가활동을 함께 하는 것 등 함께 시간 갖거나 경제적 도움도 사전 사후검사서 거의 동일한 비율로 지적되었다.

그러나 짐을 들어주기나 심부름과 같은 일상생활의 도움을 주는 일과 안부전화나 찾아 뵙는 일은 사전 검사에서는 많이 나타났으나 사후검사에서는 감소하였다. 또한 신체적인 도움을 주는 일은 사전검사에서는 나타났지만 사후검사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반대로 노인의 생일을 기억하거나 정신적인 도움을 주는 등 관심을 가져주는 일과 의견을 존중해주는 일은 사전검사 시에 비해 사후검사에서는 두 배 정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새로운 것을 가르쳐주는 일과 자원봉사 하는 일을 사전검사에서는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으나 사후검사에서는 비교적 여러 명이 지적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대학생들이 노인에 대하여 알고 난 후 육체적으로 도움을 주는 일이나 단순히 안부를 전하는 일은 이전부터 해왔던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결과로 여겨진다. 즉 노인을 나약한 사람으로 취급하여 일시적인 도움을 주기보다는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정신적인 도움이나, 할 일을 주는 것, 새로운 것을 알게 해주는 일, 한 인격체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움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결과로 해석된다.

##### 5. "자신의 노년기 전망"에 대한 지식

노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미래에 노인이 되었을 때의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관시키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내가 노인이 되면'으로 시작되는 문장을 완성시키도록 하였다. 그 결과 즐기는 생활, 능력 있는 노인, 봉사생활, 적극적 생활, 전원생활, 부정적인 견해, 기타의 6개로 분류되었으며, 이를 〈표 5〉에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대학생들은 노인이 되었을 때의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하기보다는 능력 있는 노인이라든지 적극적인 삶을 살고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였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은 노인에 대해 보다 잘 알고 난 뒤에 실시한 사후검사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즉 사전검사서 부정적인 견해가 전체의 10% 정도였으나 사후검사에서는 전체 67회 중 단 2회만

<표 5> 노인이 된 미래생활에 대한 전망

	구체적 서술(예)	사 전	사 후
즐거는 생활	주위사람들과 함께 여생을 즐기며 살 것이다. 현재노인들과 달리 여유롭고 편안하게 즐기며 행복하게 살겠다. 젊은이처럼 재미나게 살겠다. 자식들에겐 적당히하고 나와 남편에게 투자하며 즐기며 살겠다. 여행을 즐기며 보내겠다. 삶의 여유를 갖고 내 취미생활을 즐기겠다.	18	11
능력있는 노인	경제력을 갖고 주도권을 가지고 살 것이다. 자식들에게 의지하지않고 내 능력껏 살 것이다. 관리를 잘해서 주위사람을 힘들지않게 할 것이다. 당당하게 살 것이다. 노인의 위력, 지위를 지키겠다. 아름답게 늙어 아랫 세대에 존경받는 위치에 있을 것이다.	17	13
봉사 생활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남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다. 장애인학교를 지을 것이다. 내가 가진 지식을 바탕으로 자원봉사를 하겠다. 복음을 전하며 살 것이다.	10	17
적극적 생활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살겠다. 새로운 것을 배우며 살 것이다. 밝고 생기있게 사는 멋있는 노인이 될 것이다. 새로운 무엇인가를 위해 도전하고 성취할 것이다. 젊었을 때 하지못했던 것, 아쉬웠던 것을 하며 살 것이다.	6	19
전원적 생활	배우자와 전원적 환경에서 조용히 살 것이다. 조용한 농촌에서 밭일을 하며 살 것이다. 조용히 텃밭이나 가꾸며 살 것이다.	4	3
부정적 견해	건강도 약해지고 외롭고 모든 것이 서러울 것 같다. 걱정부터 앞서고 무서워진다. 싫고, 할 수 있다면 그전에 죽고싶다. 죽어서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6	2
기 타	노인시설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고있을 것이다. 지나간 세월을 떠올려볼 것이다. 삶에 대한 욕심을 버릴 것이다	4	2
계		65	67

나타났다.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에서의 변화는 긍정적인 서술 중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사전검사에서는 인생을 즐기는 생활이 가장 많고 개인의 능력을 언급한 서술이 그 다음 순위로 개인적인 정체된 삶의 측면을 언급한데 반해, 사후검사에서는 적극적인 생활이 1위이고 봉사생활이 2위로서 자신의 노후 생

활을 사회와 관련시켜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삶을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후의 삶에 대한 바람에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즉 노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적을 때에 대학생들은 노후에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특히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남은 인생을 즐기며 살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노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아진 후 실시한 사후검사에서서는 적극적 생활과 봉사생활에 대한 의지가 더 강해진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의학의 발달로 인한 수명의 연장으로 앞으로 노령화사회에서 노인이 될 자신은 단지 개인적인 능력을 갖추는 것 이외에 더 중요한 것은 노후에도 적극적인 생활과 가진 것을 나누어주는 봉사생활이 더 보람된 삶을 인식하고 응답한 결과이며 이러한 인식이 자신의 노후에 대한 바람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결국 대학생들이 자신의 삶의 목표와 생애 관점을 다른 시각에서 보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

노후생활의 전망에 대한 이러한 결과를 통해 우리 나라 대학생들은 현재의 노인 생활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즉 현재의 노인들의 생활에 대하여 바람직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을 모델로 삼을 것이나 바람직하게 보지 않는다면 그러한 생활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노인생활에 대한 지각에서 대학생들은 현재의 노인이 소극적 생활을 하며 자녀의 집안 일이나 참여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대부분 지각하고 있었지만 자신의 노후에 그러한 생활을 전망하는 사람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를 설명해준다.

##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노인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지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남녀 대학생 62명에게 한 학기 동안 노인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도록 한 후 노인과 노화에 대한 지각을 사전과 사후에 측정하여 내용분석을 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에 관한 지각을 '늙은(old)' 이라는 단어로 알아본 결과 '늙은' 과 관련된 연상어의 양과 질에서 변화를 보였다. 대학생들은 노화에 관한 지식과 경험 후 연상어의 수효가 증가하고 다양해졌으

며, 내용 면에서 긍정적 단어는 증가하고 중립적 단어나 부정적 단어는 감소하였다. 또한 늙어간다는 것의 의미로 노인에 관한 지각을 알아본 결과, 대학생들의 부정적인 서술이 사후검사에서 현저히 감소하였고, 중립적인 서술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둘째, 노인생활에 대하여 대학생들은 사전검사에서 대부분 소극적 생활을 한다고 지각하였으나 사후검사에서서는 소극적 생활을 한다는 지각이 감소하고, 대신 적극적 생활과 자기개발 생활을 한다는 지각이 증가하였다. 셋째, 노인을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사전검사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지각했던 사람도 변화하여 사후검사에서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대답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넷째, 대학생이 노인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지적하는데 있어서 노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후의 검사에서는 그 종류나 양이 다양하게 지적되었다. 내용 면에서도 사전검사에서 지적되지 않은 봉사활동과 학습활동이 사후검사에서 지적되었고 특히 무슨 일든지 같이 할 수 있다고 지적한 점이 특기할만하다. 다섯째, 대학생들은 노년기의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하기보다는 능력 있는 노인이라든지 적극적인 삶을 살고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노후생활에 있어서도 노화에 대한 지식과 경험 이후 즐기는 생활과 능력 있는 노인에서 보다 적극적인 생활과 봉사하는 삶으로의 전환이 현저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몇 가지 결론과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대학생들은 노인에 대한 지식과 경험 이후 노인과 노화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인 지각을 갖게 되었다. 현재 노인에 대해서는 물론 자신의 노후생활에 대해서도 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삶의 가치관을 확립하는 시기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그들의 삶의 질을 강화시킬 수 있고, 전 생애 관점에서 인생을 조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는 형식적이든 비형식적이든 지역사회 및 학교에서 노인과 관련된

교육의 실시가 중요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젊은이들을 참여시킬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해준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살펴보았지만,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지각이 개입되기 시작하는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들에게 노인관련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노인과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함으로써 노화 및 노인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형성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둘째, 앞서 지적했듯이 노년학 강의를 통해 대학생들의 의식이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노년학 강의 내용 중 지식과 경험을 구별하여 그 결과를 고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지식과 활동이 이들의 지각변화에 크게 작용하였는가에 대한 구별이 어렵다. Amir(1969)에 따르면,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로의 변화는 상호간의 접촉이 즐거울 때, 친밀한 수준에서, 그리고 기능적으로 중요한 활동을 함께 할 때 일어난다고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젊은 세대에게 유익한 교과과정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관점에서 어떤 내용 및 활동으로 구성하고 설계해야 하는지를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노인 관련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모델이 요망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노년학 강의의 일환으로 학생들에게 노인을 직접 접촉하고 경험할 수 있는 몇 가지 과제가 주어졌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비교적 긍정적인 변화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대학생들의 노인 및 노화에 관한 지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것인지 또는 노인에 대한 지각 자체가 변화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또한 이러한 과정이 대학생과 함께 한 노인에게도 동일한 변화를 초래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명확치 않다. 이러한 연구의 기본 목적은 세대간의 상호이해와 긍정적인 태도를 발전시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앞으로 노인-청소년 양 세대 모두에게 긍정적인 지각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세대공동체 교육의 측면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일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보다 다양하고 많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추후연구가 요망된다고 하겠다.

## ■ 참고문헌

- 김혜경(1997). 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조부모와의 세대차이에 관한 연구: 미국이민 가족 내의 한국 청소년과 미국 청소년간의 비교 연구. *한국 가정관리학회지*, 15(4), 65-79.
- 박경란, 이영숙(2000). 대학생이 갖고 있는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 *대한가정학회 2000년 추계 학술대회 발표논문*.
- 서병숙, 김수현(1999).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이미지 연구. *한국노년학*, 19(2), 97-111.
- 윤진, 조석미(1982). 경산노화사실인지 척도의 구성연구. *한국노년학회지*, 2, 5-15.
- 이선자(1989). 연령단계별로 본 노인에 대한 태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은미(1990). 중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이미지에 관한 연구: 텔레비전의 드라마와 코메디물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차용은(1980). 노인에 대한 대학생의 태도 연구: 전 북지방을 중심으로. *전주대학교 논문집*, 9(2), 239-262.
- 한정란(1994). 세대공동체를 통한 노인교육 교육과정의 예시적 실천연구. *한국노년학*, 14(1), 140-153.
- 한정란(2000). 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0(3), 115-127.
- Aday, R. H., Sims, C. R., & Evans, E. (1991). Youth'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The impact of intergenerational partners.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10, 372-384.
- Aiken, L. R. (1982). *Later Life*. New York : Holt, Rinehart, & Winston.
- Amir, Y. (1969). Contact hypothesis in ethnic relations. *Psychological Bulletin*, 71, 319-342.
- Chapman, N. J. & Neal, M. B. (1990). The effects of

- intergenerational experiences on adolescents and older adults. *The Gerontologist*, 30(6), 825-832.
- Couper, D. P., Norsman, A. S., & Sulick, B. (1999). Retired educators as advocates: Promoting K-12 education about aging. *Educational Gerontology*, 25, 519-530.
- Crandall, R. C. (1978). *Gerontology Reading*. Massachusetts: Addison-Wesley.
- Dellmann-Jenkins, M. (1997). A senior-centered model of intergenerational programing with young children. *The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16(4), 495-506.
- Doka D. J. (1985). Adolescent attitudes and beliefs toward aging and the elderly.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22, 173-187.
- Falchikov, N. (1990). Youthful ideas about old age: An analysis of children's drawings.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37(2), 79-99.
- Ferraro, K. F. (1992). Cohort changes in images of older adults. *The Gerontologist*, 32, 296-304.
- Friedman, B. M. & Butler, R. N. (1999). *Connecting Generations: Integrating aging education and intergenerational programs with elementary and middle grade curricula*. Goston : Allyn & Bacon.
- Guillory, A. V. (1983). The relationship of contact with grandparents and ethnic background to adolescents' attitudes toward older persons.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44(05), 1536A.
- Hummert, M. L. (1990). Multiple stereotypes of elderly and young adults: A comparison of structure and evaluations. *Psychology and Aging*, 5(2), 182-193.
- Hummert, M. L., Garstka, T. A., Shaner, J. L., and Strahm, S. (1994). Stereotypes of the elderly held by young, middle-aged, and elderly adults. *Journal of Gerontology*, 49(5), 240-249.
- Kite, M. E. & Johnson, B. T. (1988). Attitudes toward older and younger adults: A meta-analysis. *Psychology and Aging*, 3, 233-244.
- Laney, J. D., Wimsatt, T. J., Moseley, P. A., & Laney, J. L. (1999). Children's ideas about aging before and after an integrated unit of instruction. *Educational Gerontology* 25, 531-547.
- Langer, N. (1999). Changing youngsters' perceptions of aging: Aging education's role. *Educational Gerontology* 25, 549-554.
- Lichtenstein, M. J., Marshall, C., Pruski, L., Blalock, C., Lee, S., Murphy, D., & Hilsenbeck, S. (1999). Positively AgingTM: Choices and changes creating interdisciplinary middle school teaching materials using examples from geriatrics and gerontology. *Educational Gerontology*, 25, 555-569.
- Luszcz, M. A. & Fitzgerald, K. M. (1986). Understanding cohort differences in cross-generational, self, and peer perceptions. *Journal of Gerontology*, 41(2), 234-240.
- McGuire, S. L. (1993). Promoting positive attitudes through aging education: A study with preschool children. *Gerontology & Geriatrics Education*, 13, 3-12.
- Newman, S., Faux, R., & Larimer, B. (1997). Children's views on Aging: Their attitudes and values. *The Gerontologist*, 37(2), 412-417.
- Palmore, E. B. (1988). *The Facts on Ageing Quiz*. New York : Springer.
- Palmore, E. B. (1999). *Ageism: Negative and Positive* (2nd ed.).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 Scott, T., Minichiello, V., & Browning, C. (1998). Secondary school students' knowledge of and attitudes towards older people: Does an education intervention programme make a difference? *Aging and Society*, 18, 167-183.
- Seedfeldt, C. (1987). Intergenerational programs:

- Making them work. *Childhood Education*, 63, 14-18.
- Shetterley, K., Malone, D. M., & Poon, L. W. (1998). Linking needs assesment to gerontological outreach training program development. *Educational Gerontology*, 24, 537-551.
- Stricker, G. & Hillman, J. L. (1996). Attitudes toward older adults: The perceived value of grandparent as a social role.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3(2), 71-79.
- Vernon, A. E. (1999). Designing for change: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and intergenerational programming. *Child & Youth Services*, 20(1-2), 161-173.
- Weinberger, L. E. & Millham, J. (1975). A multi-dimensional, multiple method analysis of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Journal of Gerontology*, 30(3), 343-348.